

[2020년 여성정치포럼 개최]



21세기여성정치연합·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2020년 2월 5일(수),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에서 2020년 여성정치포럼을 개최했다.

여성정치포럼에서는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가 제21대 총선 대비 정치사회적 상황을 개괄한 후 후보자 및 유권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 발제했다. 이후 정순천 예비후보와 신계용 예비후보의 후보 준비과정과 활동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 여성정치포럼(2020.2.5) 발표원고 요약 -

2020년 총선과 여성의 역할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은 시대정신인 젠더를 관통하는 이슈가 없었을 뿐 아니라 여성 대표성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2020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의 핵심은 과거의 남성중심 패러다임을 벗고 성평등 국회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성평등 국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정치 세력화이다. 우리 사회도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양성평등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여성의 대표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 시민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여성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 운동과 양성평등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 여성들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선 여성 단체들이 여성 유권자들의 정치적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여성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투표나 선거 유세 참여 등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수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여성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 운동과 양성평등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여성들의 선거 관심, 투표 효능감, 정당 일체감 등의 정치태도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 시민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성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 운동과 양성평등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리더가 되고자 하는 여성은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용기를 가슴에 품어야 한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고 세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곳곳, 여풍당당!” 차세대 여성정치인 육성 프로젝트 실시]



21세기여성정치연합·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2019년 5월 3일(금)/ 6월 20일(목)/ 9월 26일(목) 세 차례에 걸쳐 예비 여성정치인을 대상으로 “전국곳곳, 여풍당당!” 차세대 여성정치인 육성 교육 및 여성정치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2019년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정치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많은 여성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1차 대구교육은 90여 명의 차세대 여성정치인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숙 본 연구소 이사장, 송경재 경희대학교 교수, 조양민 전 도의원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강연 후에는 현직 시·도의원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2차 충북 교육은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총선 및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으며, 3차 경기도 교육은 150여 명의 예비여성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치입문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강연 후에는 각 지역의 시·도의원들과 함께 간담회 시간을 가짐으로써 지역현안 및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김정숙 이사장은 강연에서 “지금까지의 남성 중심적 패러다임은 정치를 권력을 둘러싼 현상으로 정의했다면, 이제는 사랑과 보살핌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적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사회 부패를 척결하고, 정의와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치개혁(Transformative Politics)에 여성들이 앞장 설 것을 당부했다.

이어 송경재 교수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시대적인 추세인 만큼 시민단체, 여성단체, 예비 여성 정치인들이 연대하여 전략공천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천 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양민 전 도의원은 대구 강연에서 여성할당제를 비롯하여 공천과정 및 기준, 선거법 등 정치입문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대토론회 개최]



21세기여성정치연합·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2019년 10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전국의 여성지도자 및 학계, 정계 인사, 일반시민 147여 명과 함께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토론회에는 김정숙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송경재 경희대학교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정숙 이사장은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지역구 30% 여성후보 공천 의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반시 선거등록 무효와 같은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정 교수는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여성의 대표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도입 후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음을 강조하면서, 역대 선거제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중선거제도와 비례대표제 혼합제도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기에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도가 가미되면 여성의 대표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성의 대표성 확대 의미와 과제: 여성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송경재 교수는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정당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안으로 남녀동수선출제, 공천심사위원회 규모 확대 및 50% 여성위원 참여 의무화, 정당 경선시 여성후보 가산점제 확대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코로나 19 여파로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대폭 축소]

유엔은 지난 3월 9일부터 2주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던 '유엔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 연례회의' 일정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대폭 단축했다. 이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일반토의(general debate)를 비롯해 20여개 부대행사가 취소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매년 워크숍을 개최해 왔던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역시 올해는 제 64차 UN CSW에 참석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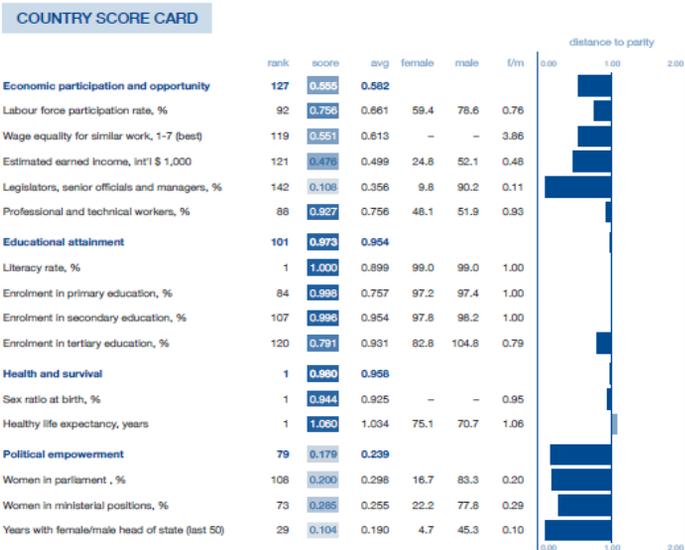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정책개발위원회로, 매년 세계 각국 대표와 관련 기구들이 모여 여성 권한 강화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 이행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올해는 제4차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개최 25주년을 맞이한 해로 각종 주제별 토의가 예정 돼 있었다.

[2020 세계 성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성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0.672점(1점이면 완전 평등)으로 153개국 중 108위를 기록했다.

성격차지수는 각 국가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여 이를 수치로 지표화한 것으로 4개 부문 14개 지표로 세분화하여 평가한다. 분야에는 ‘경제 참여 및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권한’으로 나뉘는데, 그 중 경제참여 부문에서 한국은 127위로 종합지수보다 더 낮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교육적 성취 101위, 건강과 생존 1위, 정치 권한은 79위를 기록했다.



경제 참여 부문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로는 고위 관료 및 관리자 급에 위치한 남녀의 격차가 매우 컸기 때문이며, 그 외 소득수준의 차이 및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불평등으로 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교육적 성취에서는 초등 교육에서 고등 교육으로 갈 수록 격차가 커지면서 순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성별 및 건강기대수명이 평가기준인 건강과 생존 분야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거의 없어 다수의 나라들과 함께 공동 1위를 기록했으며, 여성의원 비율과 여성장관 비율 등을 포함한 정치 권한은 79위를 차지했다.

성격차 지수를 아래 도표와 같이 세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서유럽 지역의 지수가 0.767로 가장 낮은 성격차를 보였으며, 그 뒤로 북미,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동아시아와 태평양,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중동과 북아프리카 순으로 격차가 낮았다. 지표 중 교육과 건강 부문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슷하게 높은 점수를 받음으로써 성격차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 부문에서는 남아시아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이 각각 0.365, 0.425를 기록하면서 남녀간의 경제참여 불평등이 높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0.6~0.7점대의 지수를 보였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부문은 정치권한으로 글로벌 전체 평균 지수가 0.241로 나타남에 따라 그 동안 여성의 정치참여가 높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성 격차가 가장 큰 분야로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가 전 세계적 추세를 알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153개국 중 성별격차가 가장 작은 나라는 아이슬란드였다. 아이슬란드의 성격차지수는 0.877이었으며, 그 뒤로 노르웨이(0.842)·핀란드(0.832)·스웨덴(0.82) 등 북유럽 국가들 순으로 차지했다.

Figure 8 Regional performance 2020, by subindex

	Overall Index	Subindexes			
		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Educational Attainment	Health and Survival	Political Empowerment
Western Europe	0.767	0.893	0.993	0.972	0.409
North America	0.729	0.796	1.000	0.975	0.184
Latin American and the Caribbean	0.721	0.842	0.996	0.979	0.299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0.715	0.732	0.998	0.979	0.150
East Asia and the Pacific	0.685	0.663	0.976	0.943	0.159
Sub-Saharan Africa	0.680	0.666	0.872	0.972	0.211
South Asia	0.661	0.365	0.943	0.947	0.387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0.611	0.425	0.990	0.989	0.102
Global average	0.685	0.562	0.967	0.956	0.241

Sources

World Economic Forum, Global Gender Gap Index, 2020.

Notes

Population-weighted averages, including the 153 economies featured in the Global Gender Gap Index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분석]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여성후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일정

2019년

12월 17일 ~ 예비 후보자등록

2020년

3월 26 ~ 27일 후보자등록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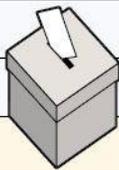
4월 1 ~ 6일 재외투표

2일 선거운동 시작

7 ~ 10일 선상투표

10 ~ 11일 사전투표

15일 선거일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3월 16일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공천결과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확정 지역구 231곳 중 여성후보는 32명으로 13.8%에 불과하며, 이 중 비례 초선 의원인 서울 서초을(박경미), 경기 용인병(정춘숙) 등이 공천을 받았다. 미래통합당 역시 지역구(189곳) 중 여성 공천 비율은 10.5%(20곳)에 그쳤으며, 이 중 비례대표나 선거 경력이 없는 여성 신인은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수희 변호사, 김미애 변호사, 김은혜 전 MBC 앵커,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등이 있다.

역대 지역구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제18대 5.7%, 19대 7.7%, 20대 10.3%로 매우 저조한 수치를 기록해 왔다. 의무적으로 여성 50%를 할당해야 하는 비례대표 의석이 포함되면 전체 의석 중 여성 의원 비율은 소폭 증가하기는 하나, 전체 300 의석 중 47석만이 비례 의석임을 감안할 때 지역구 여성의원의 비율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지역구 할당제의 중요성이 대두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할당 비율은 30%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사항이므로 여성계에서는 권고가 아닌 의무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정당정책

[더불어민주당]

1. 벤처 4대 강국을 실현하겠다. 2.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과 자생력 강화하겠다.
3.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4. 주거, 안전에 취약한 청년,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5.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에서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하겠다.
6. 국립대학의 교육 질을 높이고 등록금을 부담은 낮추겠다.

7. 인간의 존엄과 노동존중의 가치를 지키겠다.
8. 스마트 정예강군, 국익외교 등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을 만들겠다.
9. 수요 맞춤형 사회안전망 및 공공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
10. "문화. 예술 1등 국가"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

[미래통합당]

1. 우한 코로나 19 국민과 함께 극복/ 2.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 대전환 '희망 경제'로.
3.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4. 개인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5. 자유시장 내집 마련/ 6. 싹 다 갈아엎는, 文정권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재개발.
7. 국민 행복의 근간 안전한 대한민국/ 8. 공정. 희망! 청년 氣살리기.
9.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비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10. 함께하는 세상! 또 하나 가족 반려동물, 원손잡이 권익향상.

[민생당]

1.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민생지원 및 극복 수당 지급.
2. 공공개혁으로 국민 세금 낭비 방지, 행정 신뢰. 효율성 증대.
3. 5.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4. 투기꾼에게는 세금을, 집 없는 사람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을.
5. 미래지향적 교육개혁 및 국. 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
6. 고용세습과 채용 갑질 근절 및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형성.
7. 농업. 농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익형 직불예산' 3조 원 확보.
8. 군. 복무 청년에게 더욱 확대된 국가보상 및 지원 강화.
9. 방송 공공성. 공정성 강화.
10. 미세먼지 50% 감소 및 호남권 등 환경 일자리 100만 개 창출

[정의당]

1. 그린 뉴딜 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 2. 청년에게 부모 찬스 대신 사회 찬스를.
3. 부동산 투기 근절, 서민 주거안정/ 4.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책임 평등교육.
5. 차별 없고 안전한 일터, 땀에 정직한 나라/ 6. 골목경제 활성화, 농어민 삶의 질 제고.
7. 정의롭고 안전한 복지국가 실현/ 8. 모두가 존중 받는 차별 없는 대한민국.
9. 국민 주권을 위한 정치. 국회. 정부. 사법 개혁/ 10.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한반도.

[세계여성의 날, 여성의당 공식출범]



세계여성의 날인 지난 3월 8일 ‘여성의당’이 공식 출범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아트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당명과 당헌, 강령을 확정하고 7인의 공동 당대표를 추대했다. 10대부터 60대까지 세대별로 윤서연, 이지원, 이성숙, 김은주, 원소유, 장지유, 김진아씨가 여성의당 초대 공동당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여성의당은 지난 2월 14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절차에 돌입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카드뉴스, 영상 등으로 홍보 활동을 벌인 끝에 정당 설립 요건을 갖췄다. 여성의당은 서울·경기·경남·부산·인천 각 시·도당에 1000명 이상이 참여해 8일 현재 당원이 약 1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창당준비위(위원장 김은주)는 “기존 남성 중심 정치의 여성 혐오와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 평등을 실현하며 여성 안전에 우선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간 인형 수입·제작·영업 금지’ ‘성범죄용 채팅앱 함정수사 허용’ ‘의제강간 연령 16세 이상으로 상향’ ‘성매매 구매자 엄벌·신상 공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엔보고서: '10명 중 9명은 여성에게 편견 있어']



10명 중 9명은 여성에게 편견을 갖고 있다는 새 유엔보고서가 나왔다.

'성(性)사회규범지수(GSNI)' 보고서는 75개국을 대상으로 정치와 교육, 경제, 생식권 등 네 분야에서 편향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절반에 가까운 남성들이 여성보다 남성이 직업에 대한 더 많은 권리를 갖는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3분의 1은 남성이 배우자를 때리는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도 네 분야 중 하나라도 편견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7.07% 달했다. 반면 젠더 편견이 없다고 답한 경우는 12.93%였다. 짐바브웨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가장 심한 국가로 꼽혔다. 성 평등 문제가 전혀 없다고 답한 사람이 0.27%에 불과했던 것이다. 반면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에 있는 작은 내륙국 안도라에서는 72%의 응답자가 젠더에 따른 편견이 없다고 답했다.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

보고서는 세계 남성과 여성의 절반이 남성 정치지도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약 55%가 남성이 정치 지도자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여성 대통령이 아직 나오지 않은 미국에서는 약 39%의 응답자가 남성 지도자가 더 낫다고 답했다. 뉴질랜드는 상황이 좀 나아졌다. 현재 여성 총리를 둔 이 나라에서는 27%만이 남성 지도자를 선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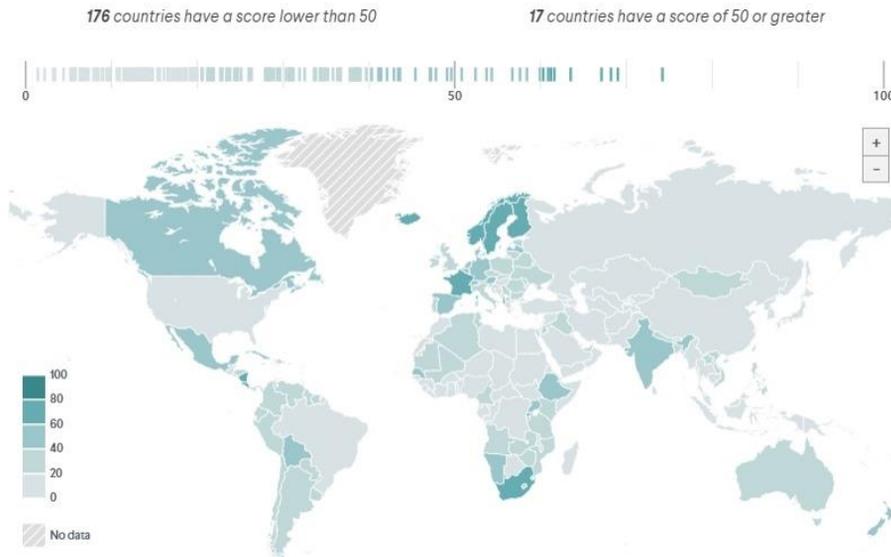
한국은 약 64%가 그렇다고 답해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현재 193개국에서 여성 수장은 10명이다. 2014년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의회 의석에서는 그 비율이 조금 높아졌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여성이 의석 수의 31%를 차지, 여성 정치참여가 가장 높았다. 남아시아는 17%로 가장 낮았다.

유엔개발계획(UNDP) 페드로 콘세이상 인간개발보고서 담당자는 "우리는 여성이 삶의 기본 요소에 남성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수십년 동안 먼 길을 왔다"며, "하지만 젠더 격차는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너무나 분명하다. 특히 권력관계에 도전하고 진정한 평등을 달성하고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는 더 잔인하다. 오늘날 젠더 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편견과 선입견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임금이 낮고 고위직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적다. 전 세계적으로 40%의 사람들이 남성을 여성보다 경영진으로서 더 높이 평가했다. 한국에서는 54%의 응답자가 남성이 여성보다 직업에 대한 권리를 더 많이 가져야 하며, 남성 경영 간부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같은 문항에 대해 영국은 25%, 인도는 무려 69%라는 수치를 보였다.

[미국외교협회 '여성 파워 지수' 조사 보고서]



북한 여성들의 정치 참여 수준이 전 세계에서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일 전했다. 미국 워싱턴DC 미국외교협회(CFR)가 지난달 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여성 파워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정치적 평등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14점으로, 조사대상 193개국 중 137위를 기록했다.

정치적 평등성 점수는 국제의회연맹(IPU)과 유엔통계위원회(UNSD) 자료를 토대로 각 나라의 국가수반과 내각, 의회, 지방 의회 등에 진출한 여성의 비율에 근거해 산정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현재 국가수반이 남성일뿐 아니라 1946년 이후로 여성이 국가수반을 맡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입법부인 최고인민회의의 내 여성 비율은 18%로 전 세계 123위이며, 여성 의원 후보 비율도 18%로 전 세계 70위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17점을 기록해 124위에 그쳤다. 한국은 1946년 이후 여성 대통령을 단 1명만 배출했으며, 22%가 여성인 내각과 달리 여성 의원과 의원 후보, 지방 의회의 여성 비율은 모두 20% 미만으로 조사됐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146위와 154위에 머물렀으며, 상위권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주로 차지했다.

보고서는 "여성의 정치지도는 초당파와 평등, 안정을 촉진한다"며 "여성이 의회의 25~30%를 차지하는 중요 집단일 때 기존의 관습과 정책 안건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 대표는 내전의 위험과 실종, 살인, 정치적 감금, 고문 등 국가 차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낮춘다"며 "여성 비율이 높은 의회는 가정폭력과 강간, 성폭력을 비롯한 성 평등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35세 여성총리' 핀란드, 아빠 유급 육아휴직 2배로]



출처: 서울신문

핀란드에서 유급 '아빠 육아휴직'을 현행의 두 배로 늘려 '엄마 육아휴직'과 동일한 수준인 7개월로 연장하기로 지난 2월 5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아이노 카이사 페코넨 핀란드 보건사회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7개월의 유급 아빠 육아휴직 중 절반은 엄마가 더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전격적인 아빠육아휴직 연장으로 남녀평등이 개선되고 떨어지는 출생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핀란드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19년 '유리천장 지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중 4위에 오른 바 있다. 또한 임신부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이전에 한달 간의 임신 휴가도 제공하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핀란드의 신생아 수는 2010년에 비해 20%정도 줄었다.

한편 지난해 34세의 나이로 총리에 취임해 19명의 장관 중 12명을 여성으로 임명한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는 지난달 다보스에서 열린 제 50차 세계경제포럼 회의에서 "국가와 기업이 여성의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영국 하원서 여성 의원 '풍년'...34% 역대 최대]

영국 총선에서 여성 의원이 역대 최대 규모로 당선됐다. 영국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19년 12월 12일(현지시간) 총선 개표 결과 전체 당선인 650명 가운데 여성은 220명으로 34%를 차지했다. 종전 기록인 2017년 208명 보다 12명 더 많다. 여성 의원이 하원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것은 영국 정치사상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런던에선 여성 의원 비율이 49%로 절반에 도달했다. 잉글랜드 남서부(20%)와 북아일랜드(22%)에선 남성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영국 상원 역시 여성 비율은 27%로 낮은 수치다.

당별로 살펴보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보수당은 여성이 87명으로 지난 선거 때 보다 20명 늘었으나 전체 당선인의 4분의 1에 머문 수준이다. 반면 노동당은 104명의 여성 의원을 당선시켜, 창당 이래 처음으로 남성 의원 수를 초과했다.

KIWP 뉴스레터

■ 국내외 여성 정치 연구자료 소개

- 김민정,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의 효과”, 페미니즘연구 제 14권 제20권 제3호(2013).
- 김원홍, 김복태, “지방선거 공천제도 변화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전망 및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3).
- 송태수, 양민석, “여성정치참여와 여성정치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0집 4호, (2014).
- Ferreira, F. & Gyourko, J., *Dose Gender Matter for Political Leadership? The Case of U.S. Mayor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Submitted(2011).
- Rohini Pande, Deanna Ford, *Gender Quotas and Female Leadership: A Review*, Harvard University(2011).

■ 이달의 책



『정치사상과 여성: 고대그리스에서 마키아벨리까지』의 저자 색슨하우스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 책을 시작한다.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은 과연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았을까? 근대이전 고대와 중세의 경우 여성들의 정치적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색슨하우스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로마의 역사가와 법률가, 키케로, 중세 교부인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성 토마스 아퀴나스, 마키아벨리 등 주요 사상가들의 저서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다른 작품까지 상세하게 분석한다.

[정치 사상과 여성]

아를린 색슨하우스 지음

박의경 옮김

전남대학교출판부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